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실체와 하나

양 호 영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

1. 들어가며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떠한 탐구를 행할 때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된다. 그중 하나는 말해지는 어떤 것이 '여러 가지로 말해진다(πολλαχῶς λέγεται)'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실체(οὐσία)와 그에 따르는 것들(τὰ κατὰ συμβεβηκός)의 구분이다. 이전의 철학자들이 그에게서 비난받는 주된 까닭도 그들이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들은 단순하게도 하나의 이름이 단지 하나의 것에만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 되는 듯이 여겼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했다. 그가 이전의 철학자들에 대해서 비난했던 점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논란의 여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거리들을 잠시 접어두고 말한다면 그것은 한편으로 자신의 탐구방법을 선명하게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나는 이 글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탐구를 시작할 때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점들 중에서 특히 실체와 그에 따르는 것들의 구분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체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부분은 「형이상학」 Z편이다. 하지만 실체에 대한 그의 생각은 가장 초기 저작인 「범주론」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며, 이것은 사실상 그의 저작 전체에 걸쳐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여기서 몇 가지의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실체라는 것을 생각했는가? 실체를 한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나아가 도대체 실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나는 실체가 무엇인지 대한 논의의 실마리로서 '하나(ἓν)'를 선택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이 탐구의 출발점으로

서 명시적으로 지적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임의로 선택된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의 저작 여러 곳에서 있음($\tau\acute{o} \acute{o}\nu$)과 하나($\tau\acute{o} \acute{\epsilon}\nu$)가 유사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우선 그는 형이상학에서 다루어야만 할 여러 난제들을 명료하게 제기하는 저술인 「형이상학」 B편에서 특히 있음과 하나에 관련된 문제들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¹⁾ 또한 다른 곳에서는 하나와 있음이 어떠한 방식으로 동일한 것으로 생각되는지를 상술하고 있다.²⁾ ‘하나’는 ‘있음’과 더불어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 이것들은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것에 술어가 된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범주에도 있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이름의 로고스는 다른 범주에 속하는 이름을 서술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³⁾ 이 때문에 ‘하나’는 ‘있음’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로고스를 그것이 서술하는 이름들에 덧붙이지 않는다.⁴⁾

하나와 있음의 유사성을 밝히는 위의 구절들에서 우리는 그가 ‘하나’를 ‘있음’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다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의 확인과 더불어 또한 다음의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다. 그것은 위의 구절들이 그의 탐구가 언어를 통해서 반영된 있는 것들의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그의 탐구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 먼저 이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언어와 세계의 관계를 「범주론」과 「해석론」을 통해서 밝혀보고자 한다. 그리고 「범주론」에서 제시되는 실체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실체에 대한 탐구에서 ‘하나’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⁵⁾

1) 「형이상학」, B권, 1001a4-8.

2) 「형이상학」, I권, 1054a13-19.

3) 「범주론」, 5장, 2a19-34.

4) “하나가 그것이 서술하는 이름에 어떤 로고스도 덧붙이지 않는다는 것은 일상적인 사람들의 이해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그들이 ‘사람’이라는 이름에 ‘한’을 덧붙인다고 해서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있는’을 덧붙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형이상학」, Γ권, 1003b22-33 참조.

5) 이 글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실체와 하나>의 1부를

2. 말해진 것은 있는 것을 가리킨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최초 작품으로 인정되고 있는 「범주론 (Categoriae)」은 언어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탐구의 기본적인 태도를 밝히는 저작이다. 다시 말해 그는 「범주론」을 통해서 언어, 세계, 생각에 대한 관계를 미리 설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관계의 중심에는 언어가 놓여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언어에 대한 기본 관점은 다음과 같다. 말해진 것(τὸ λεγόμενον)은 있는 것(τὸ ὄν)을 가리킨다.⁶⁾ 그가 언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처럼 명시적으로 제시한 곳

중심으로 쓰여졌다. 참고로 학위논문의 목차 전체는 다음과 같다.

들어가는 말

I. 로고스와 실체

1. 말해진 것은 있는 것을 가리킨다
 - ① 말해진 것들이란 무엇인가?
 - ② 말해진 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 ③ 가리켜진 것들이 있다고 할 때, '있다'는 무엇을 말하는가?
2. 범주에 따라서 있는 것들의 질서
3. 「범주론」에서의 실체의 기준

II. 「형이상학」에서의 실체

1. 하나는 여러 가지로 말해진다
 - ① 하나와 있음은 어떠한 방식으로 동일하게 생각되는가?
 - ② 하나는 무엇인가?
2. 「형이상학」에서의 실체의 기준
3. 밑에 놓인 것으로서의 실체
4. 본질로서의 실체
 - ① 어떤 것들에 대해서 본질을 규정하는 말이 있는가?
 - ② 본질과 동일한 것들은 무엇인가?

III. 본질과 정의

1. 모순율의 논박적 증명을 통한 실체와 정의의 관계
2. 정의의 부분과 전체
 - ① 전체의 정의에 포함되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 ② 사물들이 형상의 부분인가? 복합체의 부분인가?
3. 정의는 어떻게 하나인가?

나가는 말

- 6) 가령 우리는 '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리키는 어떤 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개'라고 말했다고 할 때, 이 말은 그것이 가리키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단순한 도식에는 설명해야만 할

은 발견할 수 없다. 하지만 「범주론」에서 그가 말해진 것들을 구분하면서 또한 그것이 있는 것들의 구분과 일치한다고 여긴 흔적들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제 그의 저작을 통해서 그가 언어에 대해서 생각했던 내용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는 다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다.

- ① 말해진 것들이란 무엇인가?
- ② 말해진 것들이 가리키는 것들은 무엇인가?
- ③ 가리켜진 것들이 있는 것이라고 할 때, '있다'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임의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 안에서 하나의 연관성을 갖는다. 그 연관성의 핵심은 로고스⁷⁾이다. 이름과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로고스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로고스의 의미를 밝히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2.1. 말해진 것들이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말해진 것들에 대한 구분을 담고있는 저작은 「범주론」과 「해석론」이다. 「범주론」이 이름들의 사용방식에 따른 구

문제들이 매우 많이 있을 수 있다. '켄타우로스'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있지 않다. 또한 사물을 가리키지 않는 말, 가령 '건강하다'와 같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나아가서 '윈'과 같은 추상적인 말이 가리키는 것이 '개'와 같은 말이 가리키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더 일반적으로는 말해진 것과 있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들은 이후 철학사에서 언어에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수많은 이론들을 낳았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은 이후의 논의를 위한 과제로 남겨둔다.

- 7) 로고스는 두 개 이상의 이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나아가 여러 개의 로고스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도 마찬가지로 로고스라고 불린다. 나는 로고스의 핵심적인 의미가 로고스의 동사형태인 λεγειν의 일차적인 의미인 '모으다'로부터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로고스는 '이름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로고스는 문장, 진술, 명제, 이야기나 논변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또한 로고스는 비율, 이치, 이성 등의 의미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고스의 다양한 의미를 포괄하는 적절한 우리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일단 로고스로 유역하도록 한다.

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해석론」은 로고스의 성격과 양상들에 중점을 둔다.

「범주론」에서는 말해진 것들을 결합되어서 말해진 것들과 결합되지 않고 말해진 것으로 나눈다. 결합되어서 말해진 것들은 ‘사람이 걸어간다’, ‘사람이 승리한다’와 같이 단순한 문장을 이룬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을 구성하는 것들인 ‘사람’, ‘걸어간다’, ‘승리한다’와 같은 것들은 결합되지 않고 말해진 것들이다. 결합되지 않고 말해지는 것은 크게 10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⁸⁾ 한편 이것들이 결합되었을 때에는 문장(κατάφασις)을 이룬다.

「해석론(De Interpretatione)」에서도 이와 유사한 구분이 행해진다. 그러나 그 구분의 기준은 「범주론」과는 차이가 있다. 부분들이 분리되어서는 어떤 것을 가리킬 수 없는 것들은 이름(ὄνομα)과 동사(ῥῆμα)이다.⁹⁾ 이것들은 결합되지 않고 말해지는 것에 해당한다. 한편 부분들이 분리되어서도 어떤 것을 가리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로고스(λόγος)라고 한다. 이것은 문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해석론」은 「범주론」과는 달리 로고스에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름과 동사는 단지 결합되지 않고 말해지는 것들이 아니라 로고스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이고, 로고스에서의 역할에 의해 나누어진다.¹⁰⁾

이름과 동사 모두는 그것의 어떤 부분도 분리되어서는 어떤 것을

8) 즉, 실제(οὐσία), 얼마만큼(ποσόν), 어떠한(ποιόν), 어떤 것에 대해서(πρός τι), 어디에(πού), 언제(ποτέ), 어떤 모양으로 있다(κείσθαι), 어떤 것을 갖추고 있다(ἔχειν), 행하다(ποιεῖν), 겪다(πάσχειν). 결합되지 않고 말해지는 것들의 이러한 부류를 범주들(κατηγορία)이라고 한다.

9) 이름이라고 번역된 ὄνομα는 현대의 문법에서 주어를 표현하는 것이지만 원래의 의미를 살려서 이름이라고 번역한다. 동사라고 번역된 ῥῆμα는 정확하게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해진 것’이다. 이것은 술어를 표현하는 것으로 쓰인다. 이 때문에 동사라는 번역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희다’, ‘정의롭다’와 같은 형용사들도 ῥῆμα의 예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들도 ‘흰 것으로 있다’나 ‘정의로운 것으로 있다’와 같이 ‘있다’라는 동사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시간을 덧붙여 가리킨다’라는 ῥῆμα에 관한 설명에 강조를 두어서 동사로 번역한다.

10) 이름에 대한 정의는 「해석론」, 16a19-21, 동사에 대한 정의는 「해석론」, 16b6-9참조.

가리킬 수 없다. 우리는 특정하게 모인 음절들을 들었을 때만 그것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알 수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음절들의 모임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 최소의 단위이고, 그 최소의 단위를 정하는 것은 관습에 따른다(κατὰ συνθήκην). 그러나 이름과 동사는 로고스에서 의 역할에 따라 두 가지 점에서 구분된다. 우선 동사는 시간을 덧붙여 가리키지만 이름은 시간을 덧붙이지 않는다(ἀνευ χρόνου). 다음으로 동사는 다른 것에 대해서 말해지는 것들(τὰ καθ' ἑτέρου λεγόμενα)이므로 로고스의 뒷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반면에 이름은 로고스의 앞부분을 차지한다.

로고스는 말해진 것의 최소단위인 이름과 동사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로고스 중에서 이름과 동사가 결합하여 특히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는 로고스를 '보여주는 로고스(ἀποφαντικός λόγος)'라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보여주는 로고스이다.

2.2. 말해진 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이름과 동사, 그리고 로고스는 어떤 것을 가리킬 수 있는 목소리이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가리키는 어떤 것은 무엇인가? 우선 이름이 가리키는 것은 이름의 떨어짐(πτώσις)¹¹⁾과 구분됨으로써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필론의(Φίλωνος)'는 소유격(Genitive)으로서 동작의 방향이 외부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필론에게(Φίλῳνι)'는 여격(Dative)으로서 동작의 방향이 외부로 향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들은 동작의 방향을 주격인 '필론(Φίλων)'이 가리키는 것에 덧붙인다. 즉, 이름의 떨어짐은 이름이 가리키는 것에 다른 것이 덧붙여짐으로써 이름에서부터 떨어져버리는 것이다.

반면에 '필론(Φίλων)'은 동작의 방향을 덧붙이지 않는다. 주격

11) πτώσις는 문법용어로는 격변하나 시제변화를 말한다. 회랍어나 독어에서는 Genitive, Dative, Accusative를 기울어진 격(Obliged case)라고 부른다. 라틴어 Oblique는 회랍어인 πτώσις를 번역한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는 이름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원래의 의미인 '떨어짐'이라고 번역한다.

(Nominative)은 이름과 동사의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이름이 그 자체로 가리키는 것만을 나타낸다. 이름이 그 자체로 가리키는 것은 형태로서 파악된 어떤 것이다. 이름이 가리키는 것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기능(ἔργον)하는 것들인데, 그 기능은 그것이 갖는 형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와 칼리아스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둘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사람으로서의 기능과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의 떨어짐은 동사와 결합해도 참이거나 거짓일 수가 없다. 따라서 그것으로는 로고스를 이루지 못한다. 반면에 이름은 동사와 결합했을 때 로고스를 이룬다. 이로부터 이름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추리해볼 수 있다. 이름이 될 수 있는 기준은 동사와 결합했을 때 참이나 거짓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로고스를 구성하는 최소단위가 된다는 것이다. 이름이 로고스의 최소단위가 된다는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름의 떨어짐은 동사와의 관련성을 자신 안에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하나가 아닌 어떤 것이다. 따라서 로고스가 이름들을 모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이름들이 기댈 수 있는 중심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이름이 그 자체로 가리키는 것, 즉 주어이다. 주어는 동사와의 관련성이 나중에 덧붙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없이도 그 자체로 하나일 수 있다. 따라서 주어는 이름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기준이다.

반면에 동사는 이름과는 다른 것, 즉 시간을 덧붙이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름과 동사의 이 차이는 어떤 부분에서는 명확하지 않게 된다. 동사도 그 '동사의 떨어짐(πτῶσις)'과 구분되면서, 이름과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¹²⁾ 동사의 다양한 변화형태들은 현재형이 가리키는 것에 주변 시간을 덧붙인다. 마치 이름의 떨어짐이 이름에 다른 것을 덧붙이기 때문에 이름

12) “‘건강했다’와 ‘건강할 것이다’는 동사가 아니라 동사의 떨어짐이다. 그것들은 동사와 차이가 나는데, 동사가 현재 시간을 덧붙여 가리키는 반면에, 동사의 떨어짐은 그 주변(τὸν περίξ) 시간을 덧붙여 가리키기 때문이다. 동사들은 그것만이 그 자체로 말해지면 이름들이고, 어떤 것을 가리킨다.” (『해석론』, 16b16-20).

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사의 떨어짐은 시제를 덧붙여 가리키기 때문에 동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동사는 시간을 덧붙여 가리키는 것들의 원형이다.¹³⁾

‘건강하다’라는 동사원형은 분명 ‘사람’ 등의 이름이 가리키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지는 않지만 ‘건강하다’라는 동사 자체도 어떤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건강하다’라는 말을 할 때,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것만큼이나 명확하게 ‘건강하다’라는 동사가 가리키는 것을 눈앞에서 본다고 생각한다. 동사의 원형은 그것만이 말해지면 이름과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 즉 움직임의 형태를 가리킨다. 현재는 어떤 한 시점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움직임이 형태로 파악되는 순간도 가리킨다. 시간이 흘러가야 파악될 수 있는 움직임을 현재에서 공간적으로 파악했을 때, 그것의 형태가 동사가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이 동사의 원형, 즉 현재형이 가리키는 것이고, “동사는 [동사에] 속해있는 것들, 즉 밑에 놓인 것(동사)에 대해서 속해있는 것들에게 언제나(ἀεί) 기호이다(「해석론」, 16b9-10).”

이름과 동사의 떨어짐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름과 동사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름과 동사 모두는 그 자체로서 가리키는 것, 즉 모든 변화형의 기준이 되는 원형을 가리킨다. 이름이 시간을 배제한 채로 있는 형태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동사는 시간이 덧붙여 있는 것의 형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범주론」에서의 결합되지 않고 말해지는 것들에 해당한다. 이 각각의 것들은 어떠한 형태를 가리킨다.

이제 로고스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야만 한다. 로고스는 형태를 가리키는 부분인 이름과 움직임을 가리키는 부분인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로고스가 가리키는 것은 이름이나 동사가 가리키는 것과는 그 가리킴의 방식에서 매우 차이가 난다. 또한 로고스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있다’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의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13) 여기서 원형은 부정형(infinitive)이 아니라 현재형을 말한다.

2.3. 가리켜진 것들이 있는 것이라고 할 때, 이 ‘있다’는 무엇을 말하는가?

앞에서 말해진 것들의 최소단위는 이름과 동사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것들을 통칭해서 넓은 의미로 이름이라고 부르겠다.¹⁴⁾ 말해진 것들의 최소단위인 이름은 있는 것들의 최소단위와 일치한다.¹⁵⁾ ‘사람이 걸어간다’, ‘책상은 희다’라는 로고스에서 ‘사람’과 ‘책상’ 뿐만이 아니라 ‘걸어간다’와 ‘희다’도 역시 어떤 있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있다’는 것은 범주의 끝에 따라서 ‘있다’는 것을 말한다.¹⁶⁾

반면에 로고스는 이름과 동사가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면, 로고스는 있는 것들이 결합된 복합적인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가 가리키는 복합적인 것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단지 그것은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다고만 말한다.¹⁷⁾

로고스가 가리키는 것이 참과 거짓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참과 거짓이 단지 로고스가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로고스와 그것이 가리키는 것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고 생각한다. 로고스가 그것이 가리키는 것과 일치하면 그 로고스는 참이고,

14) “동사들은 그 자체로 말해지면 이름들이고, 어떤 것을 가리킨다.” (‘해석론’, 16b19-20).

15) 이름과 동사는 ‘범주론’에서 별개의 명칭으로 말해지지 않고, 단지 범주들이라고만 말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각각의 범주로 구분되는 대상들을 있는 것들이라고 말한다(‘범주론’, 1a20-1b9). 결합되지 않고 말해진 것들은 각각의 범주들로 구분이 되고,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은 있는 것들이다.

16) “있는 것과 있지 않은 것은 (1) 한편으로는 범주들의 끝에 따라서, (2) 다른 편으로는 그것들의 가능태와 현실태에 혹은 그것과 반대되는 것(비-가능태와 비-현실태)에 따라서, (3) 아니면 참과 거짓에 따라서 말해진다 (‘형이상학’, Θ권, 1051a34-b2).” 아리스토텔레스는 ‘있다’의 쓰임을 크게 위의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눈다. 이 구분은 ‘형이상학’, Δ권 7장과 E권 1026a33-b2에서도 등장한다. 나는 이 세 가지 쓰임이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것들의 연관관계가 밝혀져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광범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고, 우선 이 논문에서는 ‘있다’의 첫 번째 쓰임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은 이 세 가지의 쓰임 모두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다.

17) ‘해석론’, 16a9-13.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참과 거짓을 로고스와 그것이 가리키는 것의 일치여부에 따라서 규정하지 않는다.

로고스는 있는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지 분리되어 있는지를 가리킨다. 그는 먼저 이름들이 가리키는 것들의 결합과 분리에 관해서 말한다.¹⁸⁾ 로고스가 그것이 가리키는 것과 일치하기 이전에 먼저 이름들이 가리키는 것들이 그 자체로 결합되거나 분리되어 있어야만 한다. 여기에서의 '있다'는 결합과 분리이다. 두 이름이 가리키는 것들은 그 자체로 먼저 결합되어 하나일 때, 그 로고스가 가리키는 것은 '있다'라고 말한다. 가령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에서 '이다'는 소크라테스와 사람이 결합되어 하나로 있다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그것들이 분리되어 여럿일 때, 그 로고스가 가리키는 것은 '있지 않다'라고 말한다. 가령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아니다'에서 '-이 아니다(-으로 있지 않다)'는 소크라테스와 사람이 분리되어 두 개로 있다는 것을 말한다. 로고스가 가리키는 참과 거짓은 이름들이 가리키는 것들의 결합과 분리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¹⁹⁾

'참으로서 있다'는 말은 있는 것들이 '결합되어 있다'를 말한다. 있는 것들이 결합된다는 것은 단순히 두 개의 있는 것들이 공간적으로 접촉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두 개의 있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고, 이때의 하나는 이전의 두 개에 앞서서 미리 있을 수 있어야만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짓으로서 있다'에도 '참으로서 있다'가 앞서 놓여 있다. 있는 것들이 결합될 수 있음을 전제할 때에만 그것들의 분리를 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있지 않다'도 '-아닌 것으로 있다'라고 말한다.²⁰⁾ 하나인 것은 여럿으로 있는 것들의 근거이다.

만일 로고스가 있는 것들의 결합과 분리를 그대로 보여줄 수만 있다면, 모든 로고스는 언제나 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로고스는 거짓이 될 수도 있다.²¹⁾ 결합되어 있는 것을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18) 「형이상학」, Θ권, 1051b9-13.

19) 「형이상학」, Θ권, 1051b33-2a4.

20) 「형이상학」, Γ권, 1003b10.

21) 「형이상학」, Θ권, 1051b13-17.

보여주거나,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것을 결합된 것으로 보여주는 로고스는 거짓이다. 로고스에서 거짓을 통해서 비로소 말해진 것과 있는 것 사이의 불일치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불일치에 의해서 '있다'의 새로운 의미가 드러난다. 이 새로운 의미가 자리잡고 있는 영역이 바로 현실적인 것의 영역이다. 모든 일치와 결합의 밑에 놓인 하나의 것이 곧 현실적인 것이다.

우리는 현실적인 것을 흔히 어떤 것들이 현실적으로 있다고 말할 때 이해한다.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책상은 희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희다. 즉 눈앞에서 감각적인 저항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을 현실적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현실적인 것도 이러한 것을 말하는가?

그에게서 현실적인 것은 크게 두 가지의 것과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선 현실적인 것은 생각된 것과 대립된다. 나는 테아이테토스가 날고 있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로고스에 의해서 표현된다. 그러나 '테아이테토스는 날고 있다'는 로고스는 거짓이다. 이것은 로고스가 있는 것들의 결합과 그대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내가 생각한 날고 있는 테아이테토스는 현실적으로 앉아있는 테아이테토스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으며 그것과 대립된다. 이때 로고스가 일치해야만 하는 근거로서의 마주 놓여 있는 것이 바로 현실적인 것이다.

다음으로 현실적인 것은 가능한 것과 대립된다. '이 씨앗은 떡갈나무이다'라고 말했다고 할 때, 이 로고스는 현실적으로는 거짓이다. 왜냐하면 이 씨앗은 떡갈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로고스는 이 씨앗이 현재 현실적으로 떡갈나무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떡갈나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의 떡갈나무이다. 즉 이 씨앗은 우연적인 방해받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떡갈나무와 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로고스에서 '이다'는 가능적으로 '이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로고스는 가능적으로는 참이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은 현재라는 시간에서의 현실적인 것을 말한다.

로고스가 가리키는 것은 이처럼 현실적인 것의 영역에서 있는 것들의 결합과 분리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의 중심에는 언제나 현

실적인 것이 밑에 놓여있다. 현실적인 것은 생각되어진 것, 가능한 것과의 대립을 통해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한다. 현실적인 영역에서 있는 것들의 결합과 분리는 하나인 것에 근거한다. 현실적으로 하나인 것은 현재라는 시간에서 결합되어 하나인 어떤 것이며, 현실적으로 하나보다 많은 것, 아직 하나이지 않은 것, 하나로 생각된 것의 근거이다.

3. 「범주론」에서의 실체의 기준

이제 이름이 가리키는 것들이 어떻게 현실적인 것의 영역에서 결합하여 하나가 되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이름이 어떤 것을 가리킬 때는 가리켜진 것이 현실적으로 있는지 가능한 것으로 있는지, 혹은 참으로서 있는지 거짓으로서 있는지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범주에 따라서 있는 것을 말한다.²²⁾ 범주에 따라서 있는 것이 현실적인 것의 영역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이 속한 로고스에서의 역할을 이해해야만 한다. 로고스가 이름들을 모을 때에는 일정한 질서에 따라서 모으며, 또한 이름들의 질서는 있는 것들의 질서를 보여준다. 이름들의 질서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주론」에서 이름들이 모이는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한다.

먼저 이름들이 모이는 순서에 따르는 구분이 있다. 로고스는 이름들이 결합해서 하나가 된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름들이 결합해서 하나가 될 때, 그것들은 단지 있는 것들이 무더기로 모여있는 것이 아니다. 이름들 가운데 어떤 것은 로고스 안에서 앞서서 나오고, 다른 것은 그것에 따라나온다. 앞서서 나오는 것을 밑에 놓인 것(τὸ ὑποκείμενον)이라 하고, 뒤에 따라나오는 것은 ‘밑에 놓인 것에 따라서 모아진다(κατὰ ὑποκειμένου τινος λέγεται)’²³⁾고 한다.

22) 「형이상학」, Δ권, 7장, 1017a22-24).

23) λόγος의 동사 형태인 λέγεται는 ‘말하다’는 뜻 이외에 ‘모으다’라는 뜻도 가

로고스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뒤따라 나오는 것들을 모으는 기준이 된다. 그것의 뒤에 따라나오는 것들(τὰ κατὰ συμβεβηκός)은 앞서서 밑에 놓인 것에 따라서 모아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로고스는 여러 이름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듦으로써 여럿을 넘어서는 어떤 전체가 된다.

두 번째 구분은 다음과 같다.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다’라는 로고스에서 ‘사람’은 모음의 기준인 ‘소크라테스’에 따라서 모여있다. ‘사람’은 ‘소크라테스’에 따라서 모여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와 하나가 되지만 그 자체로 하나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희다’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크라테스’와 모여있지 않다. ‘사람’은 ‘소크라테스’의 로고스의 부분으로서 모여있다.²⁴⁾ 그러나 ‘희다’는 로고스의 부분으로서 속해있지 않고, 단지 그것에 함께 따라가고(συμβαίνει) 있을 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지 함께 따라가고 있는 것을 로고스의 부분으로서 속해있는 것과 구분해서 ‘밑에 놓인 것 안에 있다(ἐν ὑποκειμένου ἐστίν)’고 말한다.

로고스가 이름들을 하나로 모을 때, 그것은 이름들을 밑에 놓인 것을 중심으로 모은다. 이것이 로고스에서 처음으로 하나가 된다. 「범주론」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밑에 놓이는 것에 가장 적합한 것, 즉 그 자체로 하나인 것이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가장 일차적이고 가장 적합하며 무엇보다도 있는 것, 즉 첫 번째 실체(πρώτη οὐσία)라고 말한다.²⁵⁾ “가장 적합하고(κυριώτατά) 일차적이며(πρώτως) 다른 무엇보다도(μάλιστα) 실

지고 있다. 나는 여기서 로고스가 이름들의 모음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λέγεται를 ‘모이다’라고 번역한다.

- 24) 여기서의 로고스는 것은 ‘A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지는 말을 뜻한다. 맥락에 따라서는 정의라고 할 수도 있다. 로고스의 부분은 그 로고스를 구성하는 이름들을 말한다. 따라서 로고스의 부분은 A를 설명하는데 빠질 수 없는 구성요소이고, 우연히 따라가는 것들과는 구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로고스의 부분은 결국 A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 25) 첫 번째 실체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그것에 따라서 모이고, 그 때 비로소 하나가 된다. 그리고 이 나머지의 것들은 실체의 로고스의 부분으로 속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각각 제 2실체와 부수적인 것들이라 부른다.

체(ούσία)라고 말해지는 것은 ㉠ 어떤 밑에 놓여 있는 것(ὑποκείμενον)에 대해서도 말해지지 않고, ㉡ 어떤 밑에 놓여 있는 것 안에도 있지 않은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나 어떤 말이 그러하다(2a11-14).”

첫 번째 실체의 기준은 위에서 말한 두 가지이다. 이 중에서 ㉡의 기준인 ‘어떤 것 안에도 있지 않다’는 말은 「범주론」에서 명시적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그것이 ‘밑에 놓인 것 안에 있지 않다’는 말은 그것이 ‘밑에 놓인 것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 있다(χωριστόν)’라는 말이다. 이 기준은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분명해진다. 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것은 반대로 밑에 놓인 것과 떨어져 있을 수가 없다. ‘떨어져 있을 수 없다’는 말은 ‘떨어져서는 있는 것일 수 없다’는 말이고 그것과 떨어져서는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밑에 놓인 것과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이도 그 자체로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그것의 있음이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가지 기준 중에서 다른 하나인 ㉠은 ‘어떤 밑에 놓여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말해지지 않는다’는 기준이다. 로고스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다른 것에 덧붙을 수가 없고, 오히려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여러 가지의 것이 그것에 덧붙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여럿을 가리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하나의 것을 어떤 이것(τόδε τι)이라고 한다. “첫 번째 실체들에 관해서 그것들이 어떤 이것(τόδε τι)을 가리킨다는 것은 논박의 여지가 없이 참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실체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δηλούμενον)이 나뉘지 않는 것이고 수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이다(3b10-13).”

따라서 「범주론」에서의 실체의 기준은 ‘떨어져 있고, 어떤 이것인 것으로서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실체는 ‘다른 어떤 것에도 그것의 있음을 의지하지 않고 그 자체로 있는 것’이며, 이것을 ‘떨어져 있다(χωριστόν)’고 말한다. 반면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의 있음을 첫 번째 실체에 의지한다. 또한 첫 번째 실체는 로고스에서 첫 번째로 나오기 때문에 ‘나뉘지 않고 수적으로 하나’인데, 이것을

‘어떤 이것(τόδε τι)’이라고 한다. 반면에 다른 것들은 여럿을 가리킨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동일하고 수적으로 하나이면서도 반대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 실체에 가장 고유한 것이다 (4a10-11)”라고 말할 때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반대되는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점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동일하고 수적으로 하나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자신도 하나이고, 그것에 덧붙는 것들도 부수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다른 것들의 척도(μέτρον)가 된다.²⁶⁾

4. 나오며

이제까지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실체란 무엇인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지면 관계상 「형이상학」에서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 ‘하나’라는 기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개략적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그의 탐구의 출발점에는 변화하고 생동하는 자연이 펼쳐져 있다. 비록 그가 자연에 깃들여 있는 하나의 원리(ἀρχή)를 탐구하고자 했다더라도 결코 눈앞에 펼쳐지는 자연의 다양함을 거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가 탐구한 하나는 단지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떨어져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밑에 놓인 어떤 것이다.

「형이상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다른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 주고, 그 자신도 하나인 어떤 것을 형상이라고 말했을 때, 그에게서 형상은 가장 순수한 어떤 것을 의미한다. 「형이상학」에서는 이러한 가장 순수한 요소를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밑에 놓인 것’, ‘가장 앞서서 있는 것’, ‘그 자신에 대해 말해지는 것’, ‘그것이었던

26) 「형이상학」, 1권, 1장 참조.

던 바로 그것(τὸ τί ἦν εἶναι) 등의 이러한 규정들은 여러 사태들과의 관련 속에서 획득된 '하나'에 대한 기호들(σημάματα)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가장 순수한, 모든 질료적인 요소들을 다 떨어내고도 남아 있는 어떤 것이다.

그가 순수한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순간에 그는 현실성의 영역에 도달한다. 현실성의 영역은 모든 것이 비로소 밝게 드러나는, 어둠 속의 좁은 틈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가 올바르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성의 영역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또한 현실성의 영역 안에서 있는 형상과 그것의 동반자인 질료가 무엇인지를 더 철저히 밝혀야만 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러한 탐구를 이후의 과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참고 문헌

원전

- Aristotle, *Categoriae et Liber de Interpretation*, L. Minio-Paluello, (Clarendon Press, Oxford, 1986)
- Aristotle, *Physics*, W. D. Ross, (Clarendon Press, Oxford, 1988)
- Aristotle, *Metaphysics*, W. D. Ross, (Clarendon Press, Oxford, 1979)

번역 및 주석서

- Ackrill J. L., *Aristotle's Categories and Interpretation*, (Clarendon Press, Oxford, 1989)
- Ross W. D., *Aristotle's Physics*, (Clarendon Press, Oxford, 1979)
- Charlton W., *Aristotle's Physics I et II*, (Clarendon Press, Oxford, 1970)
- Ross W. D., *Aristotle's Metaphysics*, (Random House)
- David Bostock, *Aristotle Metaphysics*, (Clarendon Press, Oxford, 1994)
- Bonitz H., *Aristoteles Metaphysics*, (Rowohlts Enzyklopadie, 1994)
- Frede M. et G. Patzig, *Aristoteles Metaphysik Z*, (Verlag C. H. Beck, Munchen, 1988)
- Burnyeat M., *Notes on Books Z, H, et Q*, (London, 1979-1982)